



**명절특수로 난가 강세 지속  
- 명절이후에도 원가이상 시세 유지될 듯 -**

◆ 동향

전년대비 산란계군수의 감소와 강추위로 인한 산란율 저하, 명절 특수가 겹치면서 산지 난가가 1월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로서 수도권 기준 특란 가격이 167원으로 조사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형성하였다. 산지거래에서는 여전히 큰 폭의 현장할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난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D/C폭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연시 발생한 고병원성 AI으로 인한 산란계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이천지역 국내 최대 산란중계농가가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당장 병아리 분양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기고 있어 불안 심리로 인한 병아리 및 중추단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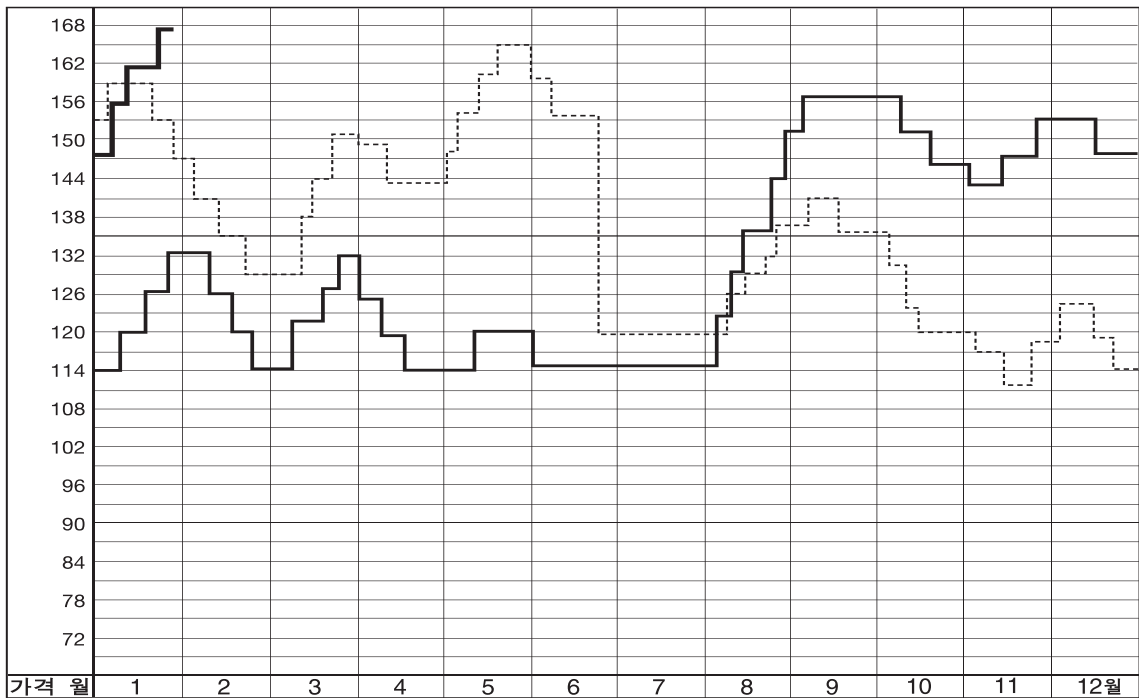
◆ 자료분석

12월 산란중계 입식수는 47,600수로 집계되어 지난해 총 산란중계입식수는 538,692수로 '09년 대비 4.1%증가하였다. 지난 11월 중계DB자료에 따르면 산란중계사육수는 58만수로 집계되었다. 금번 산란중계 살처분수 17만수를 감안하면 전체 산란중계사육수의 약 25~30%선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2월 산란실용계 분양수는 2,962천수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총 분양수는 32,761천수로 '09년대비 7.1%감소하였다. 올해 1/4분기 계란생산에 주로 영향을 미칠 지난해 3/4분기 산란실용계 분양수는 7,433천수로 전년동기간 대비 17%감소하였다. 금번 살처분까지 겹쳐 산란실용계 분양수는 전년대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11월 사료생산실적은 육추사료 26,944톤, 산란사료 170,683톤으로 전년대비 각각 3.5%, 5.4%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중계사료는 3,603톤으로 전년대비 12.3%증가하였다.

◆ 전망

명절을 앞두고 있어 난가는 강세를 이어가겠으며, 전반적인 업계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난가는 명절 이후에도 원가이상의 안정적인 시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대비 산란가담계군이 감소와 더불어 병아리 수급불안으로 인한 유통에서의 계란확보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3월초부터 개학으로 인한 급식수요가 가세하는 만큼 수요는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불균형과 가격폭등 또한 대체수요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난가는 명절 직후 일시적인 소비 공백으로 소폭 하락하겠으나 원가선을 웃돌 것으로 판단되며 특란 평균 15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용계 수급 불균형에 따라 장기적으로 계란시세에 대한 핑크빛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당장 병아리 수급의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병아리 가격이나 중추가격이 들쭉이고 있어 괜한 노파심으로 인해 과도하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은 반드시 경계하여야 하겠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09-- 2010 - 2011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월)
				육추	산란		
1	2007	39,300	2,592	24.6	176.5	1,142	1,035
	2008	55,000	2,857	28.3	176.2	1,050	1,262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	2007	25,600	2,188	23.7	157.1	1,150	1,025
	2008	35,928	2,787	26.9	169.8	1,100	1,287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3	2007	68,000	2,461	24.2	168.0	1,150	1,054
	2008	43,100	3,151	24.8	162.3	1,100	1,349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4	2007	62,500	2,581	25.7	158.9	1,150	867
	2008	0	3,469	29.6	170.2	1,100	1,283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5	2007	15,000	2,454	28.4	172.8	1,094	936
	2008	91,100	3,460	27.7	149.3	1,122	1,237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6	2007	0	2,194	25.6	150.1	1,050	891
	2008	95,500	3,046	28.3	145.8	1,100	1,202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7	2007	30,500	2,486	26.3	148.3	1,022	824
	2008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09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0	33,000	2,465	27.2	157.6	939	1,150
8	2007	49,300	2,493	24.0	153.9	1,000	973
	2008	79,000	2,985	27.0	138.9	1,069	1,245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9	2007	96,400	2,494	24.2	157.2	1,000	1,110
	2008	18,000	2,682	28.5	156.8	1,050	1,468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10	2007	23,200	3,039	27.3	164.2	1,028	1,069
	2008	39,000	2,473	29.4	164.9	1,050	1,43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11	2007	29,760	2,709	28.0	163.1	1,050	1,126
	2008	37,000	2,240	24.3	152.2	1,050	1,482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12	2007	10,200	2,236	28.9	175.1	1,050	1,254
	2008	30,000	3,069	25.4	178.1	1,050	1,536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1,172	1,504
계	2007	449,760	29,838	311.6	1,945.7	1,074	1,014
	2008	584,128	35,296	329.5	1,911.2	1,078	1,336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1,052	1,308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시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